

나가사키 평화선언

“노 모어 피폭자”

이 말은 앞으로 영원히 이 세상 그 누구도 핵무기로 인해 참화를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피폭자들의 진심 어린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울여름, 세계 여러 나라를 움직이는 하나의 조약을 만들어 냈습니다.

핵무기의 사용은 물론,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것도 금지하는 "핵무기 금지 조약"이 유엔 회원국의 60%를 넘는 122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피폭자가 오랫동안 쌓아온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피폭자”의 고통과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한 이 조약을 "히로시마 나가사키 조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핵무기 금지 조약을 추진하는 국가들과 유엔, NGO 등이 보여준 강한 의지와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15,000발에 가까운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이 조약에 반대하고 있어, 우리가 지향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에 다다른 길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게 맺어진 이 조약을 어떻게 활용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지금 인류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과 핵우산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 호소합니다.

안전 보장을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 핵 위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핵무기로 나라를 지키려는 정책을 재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은 모든 회원국에 핵 군축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지켜 주십시오. 전 세계가 용기 있는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호소합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여,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가교 구실을 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금지 조약의 협상 회의마저 불참하는 자세를 피폭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핵무기 금지 조약에 참여하고, 핵우산에 의존하는 정책을 재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제 사회는 일본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굳게 결의한 일본 헌법의 평화 이념과 비핵 3원칙의 준수를 세계에 알리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나아갈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서, 지금이야말로 “동북아 비핵무기 지대” 구상을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언덕의 상공에서 작렬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15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사실을.

그날, 원폭의 엄청난 열선과 폭풍(爆風)으로 인하여 나가사키는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흘러내리는데도 가족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검게 탄 아이 옆에서 낮이 나가 서 있는 어머니. 거리 곳곳에서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로부터 72년이 지난 지금도, 피폭자들은 방사선에 의한 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폭은 항상 곁에 있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의 목숨을 무차별적으로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의 남은 인생까지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 여러분. 피폭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원자 구름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자 구름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원폭이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았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신의 가족이 그곳에 있었다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면, 그 기억을 봉인하고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위해 그 기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견디면서 피폭자가 체험을 전하는 이유는 인류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전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호소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한 것과 잊어가는 것입니다. 전쟁 체험자와 피폭자로부터 받은 평화의 바통을 끊어지지 않도록 미래에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나가사키에서는 평화 수장 회의의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7,400개의 도시가 참여하는 이 네트워크에는 전쟁과 내전 등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진 도시의 대표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피폭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작은 도시의 평화를 바라는 염원도 힘을 합치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기 나가사키에서 평화 수장 회의의 동료들과 함께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폭 피해자가 목이 쉬도록 호소해 온 "나가사키를 최후의 피폭지로"라는 말이 인류 공통의 소원이자 의지라는 것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피폭자의 평균 연령은 81세를 넘었습니다. "피폭자가 있는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폭자를 더욱 충실히 원호하고, 피폭 체험자를 구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나가사키는 방사능 위협을 경험한 도시로써, 후쿠시마의 이재민을 응원하겠습니다.

원자폭탄으로 희생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추모의 뜻을 표하며, 나가사키 시민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바라는 전 세계 사람들과 연계하여, 핵무기 근절과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여기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2017년 8월 9일
나가사키 시장 다우에 도미히사(田上 富久)